



MARCH

RAONATTI 15TH, PANGASINAN

ATONG | KIKAY | NARDA | LAGRING | CARDO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마닐라 도착	4 Ymca 오리엔테이션 마닐라 시티 투어	5 팡가시난 도착 환영 저녁 파티
6 휴식 & 쇼핑 아피하우스 청소	7 팡가시난 도착 링가옌 투어	8 팡가시난Y 오리엔테이 션	9 덤프사이트 파갈로그어 수업	10 덤프사이트	11 성당 & 해변 카페	12 휴식
13 휴식	14 푸가르 영어 수업	15 파갈로그어 수업	16 푸가르	17 덤프사이트 파갈로그어 수업	18 덤프사이트 파갈로그어 수업	19 Ymca 졸업식
20 휴식 및 백화점 쇼핑	21 덤프사이트 파갈로그어 수업	22 덤프사이트 파갈로그어 수업	23 휴식	24 호스텔이	25 호스텔이	26 호스텔이
27 호스텔이	28 호스텔이	29 덤프사이트	30 덤프사이트	31 visa 발급일		

ARRIVE IN

PHILIPPINES



3/1 ~ 3/3 까지 출국 전 캠프를 마치고, 출국을 위해 인천 공항으로 왔다.
5개국 중 우리 필리핀이 가장 마지막에 출발하여, 무사히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2013년 기준 1억 572만 명(세계12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섬나라이다.
수도는 마닐라이며, 필리핀어와 영어, 그리고 지방 토착 언어를 사용한다.
인구의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교이며, 민족은 말레이계가 가장 많고,
네그리토/인도네시아인 등 여러 종족 간 혼혈인으로 구성 되어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Mani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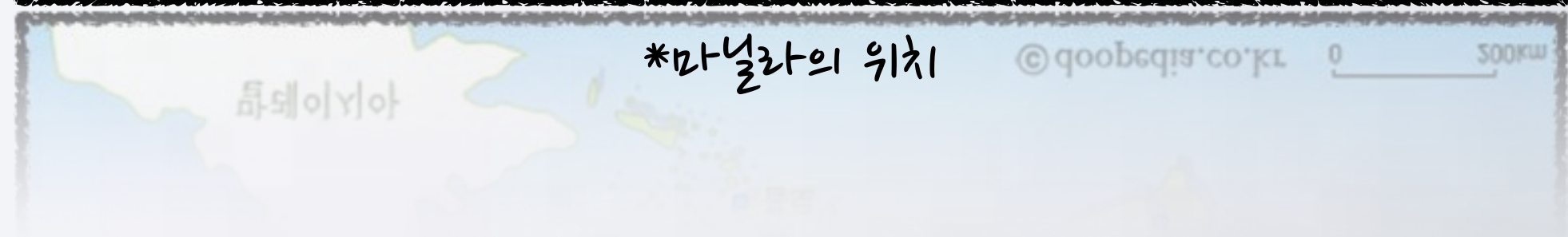
필리핀 루손 섬 서남 해안에 있는 도시로,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식적인 수도는 케손 시티로 옮겼으나,
사실상의 필리핀의 수도로 간주되고 있다. 마닐라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이미
필리핀의 정치 · 경제 · 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했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기 있는 서구식 도시가 되었다.
공업화 계획에 따라 시의 동남쪽에는 공업 지대가 형성되고 철강, 화학, 차량 공장 등도 발달했다.
북항과 남항이 있으며, 북항은 도내 항로, 남항은 국제 항로의 정박장이다. 시 남부에는 국제 공항도 있어,
각국과 교통이 활발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마닐라의 위치

© doopedia.co.kr 0 200km





-조리비-

*조리비는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다.



-SM몰, 마닐라 시티 투어-



*마닐라 시내의 큰 백화점과 박물관, 그리고 이색 레스토랑이다.



평가시난 YMCA의 지미 총장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주셨습니다.

필리핀 YMCA의 역사 및 추구하는 가치 등을 알 수 있었고,
우리 아띠들의 소개 및 지원동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MILAGROS – LAGRING
2. LEONARDA- NARDA
3. RICARDO – KARDO
4. RENATO – ATONG
5. FRANCISCA - KIKAY

동익(cardo) : 필리핀의 유명 배우, 남자다운, 근육맨, 부자

현식(Atong) :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사람.

유림(Lagring) : 기적(Miracle).

연수(Narda) : 슈퍼 히어로 (Super Hero).

다운(Kikay) : 웃게해주는 사람.

우리 아띠들이 필리핀에서 사용할 현지 이름을 선물받았다!!
멤버 모두가 만족스러워 했고, 이름을 지어준 총장님과 콜리에게 감사하다.



-03.03 ~ 03.05 at MANILA-

3/5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팡가시난 YMCA가 있는 다구판 시티로 출발하였다.

다구판 시티는 루손 섬 중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마닐라로부터 차로 4시간 반~5시간이 소요된다.

늦은 오후에 도착하여, 간단하게 저녁 식사 겸 환영 파티를 하고 우리의 숙소(아피하우스)에 입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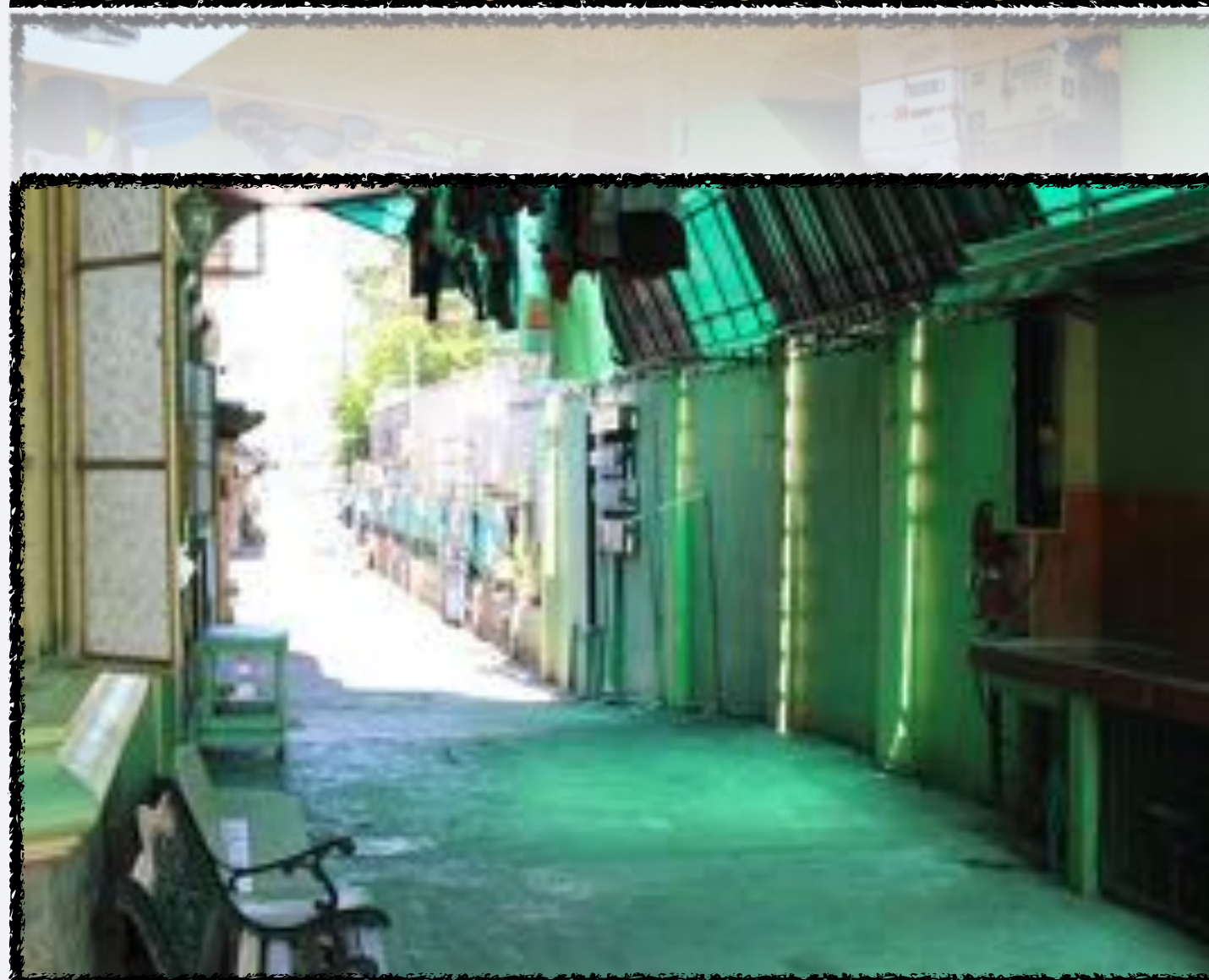


ATTI HOUSE

YMCA로부터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띠하우스(숙소)다.

2층 집에, 남녀 각각 1방씩, 화장실 2개를
구성되어있다.

천장이 높은 편이고, TV나 Wi-Fi는 없지만
넓은 편이고 지내기에 불편한 점은 크게 없다.





[Rolly]

아띠들에게 엄마 같은 롤리.
집에서는 요리를 가르쳐주고 밖에서는
사람들과 소통을 도와준다.
덤프사이트 매니저.



[Kym]

아띠들에게 아빠가 같은 김
주로 힘쓰는 일을 많이 도와준다. 특히, 물을 많이
먹는 우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푸가로의 그린하우스 매니저

LOOK AROUND

PANGASIN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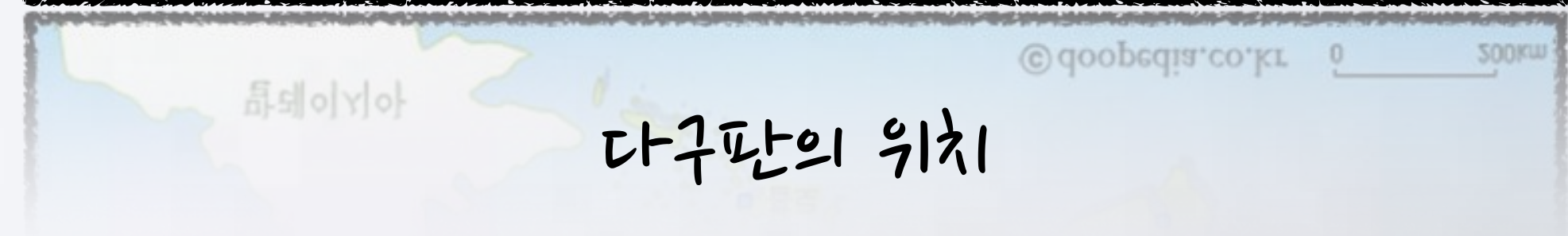
[다구판]

바기오 남서쪽 50km 지점, 링가옌만(灣)으로 흘러들어가는 다구판강(江)의 하구에서 3km 상류에 위치한다.

루손섬 중앙부에 펼쳐진 평야지대의 북쪽 중심도시로, 1590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선교사들이 건설하였다.

마닐라와 바기오를 연결하는 간선철도가 지나가며, 아구노강(江) 유역에 발달된 비농사지대와 링가옌 연안의 어업·제염지대가 배후지를 이루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구판의 위치



3/7

팡가시난 도청(캐피탈) 및 해변구경

우리는 버스를 30분가량 타고 팡가시난 도청에 방문하였다.
도청 안에서 팡가시난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도청 안의 회의실에는 회의를 하고 계시는 관계자들이
우리를 반겨주어서 라온아띠에 대해 알리고 설명해드렸다.

도청 뒷편에는 해변이 있어 팀원들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링가옌 지역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YMCA에서 한시간정도 지프니를 타고 마나와크로 갔다.
마나와크 성당은 필리핀에서, 팡가시안에서 유명한 성당이다.

필리핀에서 유명한 성당인 만큼 외부, 내부 모두 매우 아름다웠다

우리는 성당을 둘러본 후, 가까이 있는 San Fabian 해변으로 갔다.
해변에서 팀원모두 바다수영을 즐긴 후, 맥주한잔 카!



필리핀의 맥주인 산미구엘을 즐겼다.
너무나도 상쾌하고 기분 좋았던 날이었다.



코디네이터들과 팡Y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

그날은 댄스 페스티벌과 학과별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날이었다.



그날은 많은 필리핀 학생들을 만날수가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전시회를 구경하고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던 날이었다.

OUR

ACTIVITY

DUMPSITE



다구판 시티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다.
Left side / Right side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Side에 몇몇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 곳에서의 우리의 주 프로그램은
아띠클라세와 상처 치유이다.

3월 한 달 간은 프로그램 보다는
관계 맺기에 집중을 했으며,
4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띠클라세 - 덤프사이트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에게 영어교육, 위생교육 등을 하는 것

동익 : 첫인상이 강했던 사이트였다. 국내훈련을 통해서 머리로는 배웠지만 현지에서 몸으로 느끼는 덤프사이트는 다르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많이 경직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손잡고 놀고 있다. 아직도 서툴지만 남은 시간동안 아이들과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다.

현식 : 과연 어떤 곳인가 많이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 생각보다 무덤덤했다. 냄새도 별로 심하지 않았고, 쓰레기는 많았지만 내가 예상했던 모습 보다는 괜찮았다. 이곳에서 아피클라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텐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기대가 된다.

유림 : 덤프사이트 첫 방문일때가 생각이 난다. 이러한 환경과 냄새가 익숙하지 않아서 활동 후,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있었다. 점차 자주 방문하고 활동하다보니 덤프사이트 환경에 적응을 하였다. 아이들이 너무 귀엽다.

연수 :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반기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좋아진다.

다운 : 처음엔 그저 사람들과 어떻게 어디서부터 관계를 맺어나갈지가 막막했다. 그래서 활동지를 몇번이나 갔지만 진전이 없는것 같아 시간도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편해지고, 시간도 빨리간다. 나는 점점 덤프 사이트의 활동을 즐기고 있다



-3월의 덩크사이트-



푸가로는 수산시장에서 배를 타고
10분정도를 가야 나오는 섬 마을 이다.

우리의 활동으로는 Green house 가꾸기 이며,
6월부터는 Day care center에서도 활동 할 예정이다.

3월 동안에는 자주 가지 못하여서
주민들과 관계맺기, 푸가로 둘러보기에 집중을 했다.

*Green House - Pugaro integrated school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다.
아직 상세한 활동 목적은 모르지만, 차차 알아가고 싶다.

- Intergrated school 친구들과 배구경기를 한 후 -

동익 : 3월의 푸가로는 그린하우스활동 위주로 하였다. 김의 지휘하에 그린하우스를 더 알게 되었지만 아직은 활동에 대해서 동기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나머지 시간동안 조금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할것같다.

현식 :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서 크게 느껴지는 점은 없다. 조금 더 배우고 느끼고 해야 깨달음이 될 것 같다.

유림 : 푸가로에서의 3월 활동은 데이케어 센터 방문 및 그린하우스를 둘러보고 하우스 가꾸는 일을 하였다.
그린 하우스를 점점 볼때마다 굳이 그린하우스가 있어야 하는걸까 라는 고민에 빠지고 있다.

연수 : 나는 팀원들과는 다르게 정작 두 번 뿐이 제대로 푸가로를 다녀왔다. (몸상태가 좋지않아서)
그린하우스의 집초걸러내고, 즉흥적으로 학생들과 배구게임을 했었다.
재미는 있지만, 그린하우스의 목적을 모르겠다.

다운: 푸가로는 생각보다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아 아쉬웠다. 그린하우스라는 텃밭가꾸기 활동의 방향성을 즐길 수 있게 잡으면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 기대된다. 그리고 나는 푸가로를 가기 위해 배를 타는게 너무 재미있었다 ^o^



-3월의 푸가르-

HOME STAY

LAGRING'S HOME STAY



*아띠 : 언니, 누나라는 뜻의 필리핀어

필리핀에서의 첫번째 홈스테이는 아띠 마벨 가족들과 4박 5일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아띠 마벨 할머니댁 시골인 CAROT 지역에 가서 친척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홈스테이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줄 몰랐다. (어메이징!!) 같이 티비도 보고 일상적인 이야기 나누고 같이 빨래도 으차으차 시골집 바로 옆에 운동장이 있어서 마벨과 멜라 함께 농구도 하고 자전거 타고 마을 주변 구경하러 다니고 집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바로 바다가 있어서 거기서 환타와 과자를 꺼먹으면서 놀았다.

또한 아띠 자키와 땅콩 같이 까먹기!! 땅콩 까먹으면서 사소한 대화와 한국의 말을 조금 가르쳐주었다.
아띠 마벨 시골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항상 사용하다가 여기서 음식을 손으로 먹으려 하니 먹기가 어려웠다. 마벨이 옆에서 손으로 쉽게 먹는 기술을 알려주어서 이제는 잘 먹을 수 있다!!



홈스테이 기간에 아떼 마벨 할머니께서 졸업하신 CAROT 초등학교 2번째 동창회 축제가 있어서 함께 참석하였다. 한국의 동창회 모임과 다르게 필리핀에서는 초창기 60년도 졸업생부터 최근 15년도 졸업생까지 다 모여 각 부스마다 졸업생이 준비한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며 그날 하루 종일 축제를 진행하였다.

홈스테이 4박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아떼 마벨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가족들에게 받는 사랑과 내가 몰랐던 농구 기술들 그리고 팡가시안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 탐방 및 필리핀 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어서 내 생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들 이었다.



ATONG'S HOME STAY





24 ~ 28일까지 5일간 홈스테이를 했다.
 나는 "아르넬"이라는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르넬과 친하지 않아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첫 날 오후 늦게 아르넬의 집으로 출발하였다. 조금 쉬다가
 저녁을 먹고 걸어서 교회를 가야 한다...
 장난인 줄 알았으나 정말 걸었다. 왕복 약 4시간 정도 걸렸다.
 저녁에 집에 오자마자 잠이 들었고, 그렇게 둘째 날 또한 하루 종일 잠만 잤다.
 사실 둘째 날까지는 홈스테이가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다.

셋째날 부터는 많은 경험을 했다.
 농구장에 가보고, 다구판에서 가장 유명한 물고기(방구스) 양식장도 가봤다.
 또한 생일파티에 가보고, 피에스타(축제)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이곳의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끔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조금씩 적응해 보기로 했다.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바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게 부러웠다.
 나도 이곳에서 조금 여유로워지고, 소통을 하며 천천히 천천히 살아가는 방법을 맛볼 수 있었다.
 아르넬의 집에서 지내면서, 누군가 한국에 있는 우리집에 홈스테이를 하러 온다면,
 "나도 아르넬의 가족들이 나에게 해준 것 처럼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다 갈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
 아마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또한 들었다.
 나를 처음 봤지만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배려를 해준 아르넬과 아르넬의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CARDO'S HOME STAY





흠~우선 잘생긴 온부터 소개 하겠습니다.
한국나이 28이지만 얼굴은 잘생긴 동안이며(뒷줄 가운데)
YMCA장학생 출신으로 4박5일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고마운 친구.

공휴일인 3월24일에 그의 동네를 트라이바이시클로 마을을 누비며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하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를 마치고 저녁 만찬을 먹고 앉아 있는데 온이 "우리는 교회를 가는데 같이 갈꺼냐"는 이야기에 필리핀의 카톨릭을 경험하고자 자신 있게 "Of course" 를 외쳤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30km 거리인데 괜찮겠냐는 말을 하는데

문득.. "어? 이게 뭘 소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농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의 설명을 들을수록 진짜라는걸 알게 되었고..

난 저녁 9:00 PM부터 걷기 시작해서 다음날 1:30AM까지 걸어서 mandaoag church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렇게 필리핀의 카톨릭을 몸으로 느끼는 하루가 되었다. 그 다음날은 점심때까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였다.

그렇게 고단했던 일정을 마치고 난뒤 온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고 나도 스물스물 마을에 녹아들기 시작하였다. 배가 불러도 계속나오는 온가족의 음식들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들의 친절함에 취해 버렸다.

그렇게 넬리니야를 외치며 마을을 누비고 사람을 만나면서 공휴일 홈스테이는 아쉬운 작별인사를 끝이 났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조금더 그들을 알아가게된 날들이었고 너무나 기분좋은 홈스테이였다.

NARDA'S HOME STAY

여기 pre school의 선생님 chari의 집으로 홈스테이를 가게 되었다.
마나옹 주변의 집으로 트라이시클타고 지프니타고 벤틀하고 트라이시클을 타서 갔던, 팀원중에서는 제일 먼 집이었다.
여기에는 나나이와 chari, charmain과 그리고 막내 Mik-noi가 사는 집이었다.
아주 아늑하게 산과 나무, 많은 동물들이 있는 집이었다.
아토피가 있는 나에게도 정말로 적합한 집이었다.

우리의 일정은 오후5시가 돼야지 시작이되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워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홈스테이의 제일 큰 일정은 성당의 일정이었다.
우리는 매일 성당을 가서 성당의 일정을 즐겼다.
모태신앙인 나에게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필리핀만의 카톨릭 문화여서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때때로 차밍과 사촌집을 방문하고, 사촌 주디와 함께 코스텔이라고 호숫가의 길을 걷거나, 언덕을 뛰놀았다.

매 일정마다 나를 잘 챙겨주고, 신경써주었던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고 감사하다.
홈스테이에서 왜 살이 쯤다는지 알것같았다.
많은사랑과 음식을 먹어서 살이 쯤나보다.

이번 휴일의 홈스테이로 소중한 사람들이 생겨서 너무 좋다.



KIKAY'S HOMESTAY



Liberato Quinto

웃음이 많은 아버지, Liberato!

Lloyd Quinto

따가르그 단어를 같이
익혀줬던 자상한 Lloyd

Lanz Quinto

수줍음이 많았던
귀여운 둘째 Lanz

Alice Quinto

자유롭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Alice



#성당친구들



#부활절행사



#맛있는음식



#선물

셋째날, Alice와 함께 성당에 가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작은 전시회 관람!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꾸며놓은 이야기들을 담은 재미있는 전시회였다!
전시회가 끝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는데 정말.. 최고!!! 집에 올 땐 손이 무겁도록 많은 선물과 함께 😊



#농구경기



#생일파티



#친구들과의 사진



셋째날 낮에는 마을의 농구팀과 다른 마을 농구팀의 대결이 있었는데 결과는 역전승! 마을 팀이 이겨 나도 덩달아 신났다!
오후에는 성당의 한 할머니의 생일파티에 초대되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성당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시끌벅적한 하루였던 😊



#마지막밤



#FIESTA



#음악과 춤



#ARNEL #ATONG

마지막 밤은 Fiesta가 열렸는데, Alice 사촌이 이쁘게 옷을 입고 참여해서 사진을 함께 (ㅎㅎ 난 오징어가 되었다..)
Fiesta 중간에 이웃주민 Atong과 Arnel을 만나 함께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며 우리끼리의 즐거운 Fiesta를 ^^

#호스텔이, 그 후

호스텔이 기간동안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처음은 말이 통하지 않았고 공감대가 적었지만 덕분에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긴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래서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상대방의 흥미를 끌 유능한 말솜씨나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를 가지고 친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처음 사람들을 만날 때, 여유를 가지고 다가가는 법을 배웠다.

4박5일동안 거식을 내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준 Alice에게 정말 감사하다. 덕분에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추억을 쌓았던 시간이었다. Salamat po!

SUPPLEMENTS

#캣맘 연수

동물을 사랑하는 연수. 아띠하우스 마당 앞에는 고양이들이 살고 있어 밥을 챙겨주는 캣맘 연수짱 덕분에 고양이들이 무럭무럭 잘 잘라고 있다는 후문이



#조리비를 닮은 조리

조리비를 먹다가 조리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다. 조리비가 사람이었다면 조리였을거 같다.



#운동 중독 변신

살을 빼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열심히.. 과도하게 하고 있는 변신 조만간 헬크될 기세 우오오오오오오





유림의 생일

2016.03.07

필리핀 팡가시안에서 23번째 생일을 맞이 하였다.

팡Y 식구들과 팀원들이 생일파티 준비를 해주어서 감동 받았다. 어떻게 내가 꽃을 좋아하는 걸 알았는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신경 써준 콜리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식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어서 고마워. 편지와 영상 만들어준 팀원들도 살라마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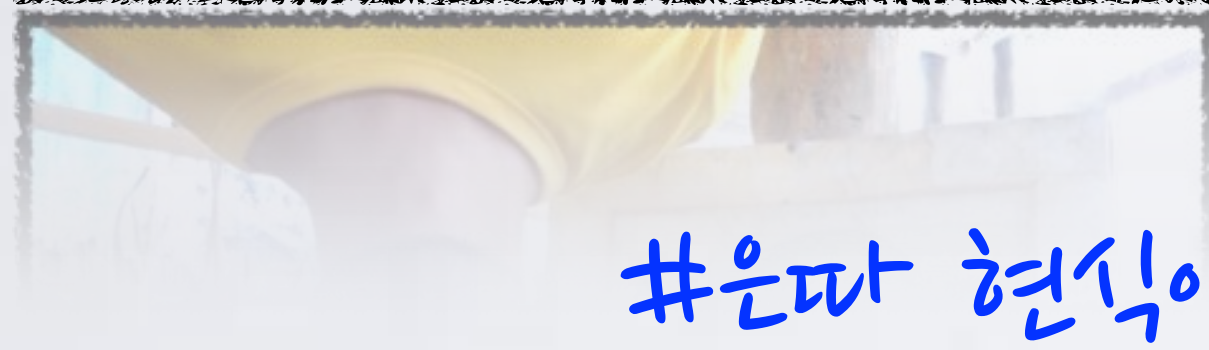
-유림-





#수염기르는 변씨

리카르도는 필리핀 5개월동안 예수머리와 수염을 기르기 위해 관리 중이다.



#은따 현식이

활동 초반에 옷을 입을때 아똥만 다른 옷을 입어서 은따라고 놀림을 받았다



#테이프걸 다운징

테이프를 소리조리 잘 활용하는 막내다운이

개인 에세이

Lagring(조유림)

필리핀에 온지 이제 한 달이 되었다. 시간이 금방 가는 거 같다.

3월 한 달은 지역 적응하기, 팡Y 식구들 그리고 활동지역 사람들과 관계 형성 및 친분 쌓기였는데 팀원들 모두가 잘 형성하고 있다고 느낀다.

필리핀 음식이 이렇게나 맛있을 줄이야..다 맛있다..
특히 고기와 야채, 과일이 신선해서 너무 행복하다.

롤리와 김이 시장에서 장보는 법과 마을 주변 이곳 저곳을
데리다주셔서 이제는 스스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현지에서 아프지 않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관리 중이다.
팀원들 모두가 같이 운동하고 있기에 현지에서 아프지 않길 기도한다.

▷ 3월 한달 간 변한 점이 있다면 ??

- 머리를 말릴 때 드라이기를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자연바람으로 말린다.
- 아파트 보다는 주택이 더 좋아졌다.(아띠 하우스 살면서)
- 기계 사용 없이 베를레를 스스로 하게 되었다.
- 핸드폰이 없기에 더욱더 내 자신과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다.



Atong(서현식)

내가 필리핀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에게 너무 잘 맞고 즐거운 곳이다.

음식도 맛있고, 생활패턴, 문화 등 대부분이 아주 만족스럽다.

정신 없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한 달이 지났다.

팀원들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으며, 큰 사건 없이 바쁘게 흘러갔다.

보고서에서만 보던 우리의 주요 활동지, 방문했던 장소들을 직접 보면서
신기하고도 낯설지만은 않았다.

생각보다 이곳은 이국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곳에서 가장 큰 걱정은 도로다. 신호등이 없다보니 교통질서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조금만 부주의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가끔씩 발생하고는 한다. 그것 외에는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없다.

첫 달은 마음 편하게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

앞으로 이곳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사실 크게 “이런저런 것들을 한 번 느껴보자”라는 등의 뚜렷한 목표는 없이 이 곳에
왔지만 지내다보면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다음 달이 기대가 된다. 어서 4월 보고서에 내가
느낀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다.

필리핀의 첫 달은 너무나 만족스럽다.



Cardo (1번동익)

기억나는 사건들은 팡가시안 오자마자 수영장에서 발가락을 다쳐서 2주간 고생한것과
 마나옹 성당 근처 해변에서 놀면서 맥주 마신것,
 홈스테이에서 30km걸어서 마나옹 성당을 간것들이 생각이 난다.
 이번 한달은 현지 적응및 그들과 관계 맺는것에 집중을 했다.
 너무나 잘있는것을 보면 아주 잘하고 있는것 같다.
 하지만 아직 영어가 부족해서 깊은 내용의 대화가 힘들다.
 간단한 의사소통을 가능하지만 나뉘거나 회의와 같은 무게 있는
 대화에 있어서는 정확한 의사전달이 힘이드는 것 같다.
 이부분은 조금더 노력을 해서 코디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겠다.
 그리고 4월부터는 활동에 집중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덤프사이트와
 투가로 사람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싶다.

3월한달동안 많은 일들중에서도 다치는 일들이 조금 있었는데
 남은 4개월동안은 우리 모두가 다치지 않고 활동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나부터 안다치도록 하겠습니다.) 뱀아이팅 하겠습니다.



Narda (박연수)

와!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가끔씩 전 기수 분들의 시간이 바빠를 것 이라는 말이 스쳐 지나간다.

에세이를 쓰자니 매우 미묘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다.

필리핀에서의 나의 한 달은 여유롭지만 정신 없는 느낌이다.

이 모순적인 느낌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알겠다. "필리핀과 나는 잘 맞는다."

맞춰나간다고 보다 잘 맞는 느낌, 하지만 아직 조화롭지는 않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와 필리핀이 조화로우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면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한국이 많이 생각나진 않다.

필리핀에서 한국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기 보다는

이곳,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나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매일의 일기를 보니, 내가 요즘에 '관계'에 대해 많이 고민한다는 것을 알았다.

관계, '나' 만 이어도 안되고, '너' 만 이어도 안 되는 '우리'여야만 하는 것.

내가 고민한 만큼 분명 좋은 결과가 올 것을 알기에 더더욱 고민이 된다.

여기에 와서 한 발 물러설 때와, 한 발 다가갈 때를 배우는 것 같다.

현지의 생활은 매우 재미있다. (물갈이 + 약 부작용으로 고생한 것 만 빼고)
 팡가시안 YMCA의 volunteer친구들과 함께 사이트를 가는 것도, 장난치는 것도 다 재미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잘 아는 팀원과 함께 지내는 것이 재미있다.
 (가끔씩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아 깜짝 놀란다.)
 나는 생각보다 단체생활에 만족을 하는 것 같다.

이 곳에 와서 나의 부족한 점에 대해 많이 느꼈고, 고쳐나가야 할 점을 찾았다.
 이 것 역시 내가 현지에서 팀원들과 함께하기에 알 수 있었던 점인 것 같아서 좋다.

나의 장점과 심지어 단점까지 알아가는 것이 요즘은 너무 즐겁다.

사이트에서의 활동은 어렵다.

안양Y에서 연습을 하고 왔어도 다른 환경, 새로운 관계이기에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하루하루 사이트활동을 하면서 느껴가는 것은 그들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정말로 '놀아주는 것' 이 아닌 '놀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더욱 가까워져서 만들어 나갈 많은 추억들이 기대가 된다.

하지만 사이트활동 후에 녹초가 되어가는 나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점점 체력을 길러나가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느꼈다.



KIKAY (이다운)

한달 동안 나를 많이 알게 되었다. 음식을 많이 가리지 않고, 수영을 못하고, 체력이 좋지 않고, 아이디어가 많고, 손발러를 나름 잘 하는 등 단점이든 장점이든 내가 나를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은 배우고, 잘 하는 일에는 자신 있게 나를 내세울 수 있어 좋다.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은 것 말고는 아직까진 한국이 그리워 않는다. 오히려 여기 음식이 정말 잘 맞아 한국에 갈 때 뭘 사가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다. (코코넛주스, 사이드페(한국에는 없는 야채), 갈라만시(작은라이프), 레드홀스(맥주 ㅋㅋ), 콘비트 등등.. 여기 생활도 꼬들꼬들하게 너무 좋다!!..) 팀원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평소 한국에서는 언니나 리더의 입장이었다가, 막내가 된 지금은 애써 어른스러운 척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좋다. 또, 막내라서 오빠들 놀리는것도 재밌고 언니들이 챙겨주는것도 편하다! 점점 내 나이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는 현지에서의 내 나이가 19살이라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아직 10대라니 ><!!

며칠 전, 출국 전 캠프 때 받은 안전 매뉴얼을 보다가 뒷장에 써놓은 '호흡성에서 벗어나자'라는 다짐을 보았다. 여전히 나는 활동 계획을 할 때 호흡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글을 읽자마자 번뜩하고 정신을 차렸다. 저 문장을 잘 새겨놓고 다음달에는 호흡성을 따지지 않는 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평화 😊





SALAMAT PO

CARDO | ATONG | LAGRING | NARDA | KIKAY